

〈世界 林政思潮와 韓國의 林政〉 林政은 이제 自國만의 問題가 아니다

地球村 立場에서 다루워질 世界機構 탄생 움직임

崔 玟 休 / 임업연구원 산림경영부장 農學博士

尊 敬하는 金樟洙 會長님, 韓丙起 會員
님 및 來賓 여러분! 먼저 韓國林政研
究會 스무돌을 맞이하여 마음으로부터 祝
賀를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를 빌
어, 世界林政問題에 대한 報告 말씀을 드
리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次例는 便宜上 세갈래로 나누
어 볼까 합니다

첫째는 現在 世界 林政問題가 國際政治
議題로 浮上 돼가고 있는 樣相을 간추려 보
고, 둘째는 林政問題가 왜 國際政治問題化
되고 있는지 그 까닭을 살펴본 다음 마지
막으로 이러한 國際狀況下에서 우리 韓國
林業人들은 어떻게 對應해 나가야 할 것인
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傳統政治文化부터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林政은 傳統의으로 政治文化와 깊은
關聯을 맺어 온듯합니다. 가령 『治山治水
가 政治의 要諦』라 할때에 『治山』이 반
드시 用材나 柴草를 生産하는 經濟的 價側
만을 일컬음이 아니요, 아름답고 포근한
自然과의 調和속에서 百姓들의 삶을 풍성하
게 하는, 다시말하면, 治山을 通하여 治水
를 하고, 治水를 通하여 治農을 하며, 治農

을 通하여 治民을 하는 것을 政治의 本으
로 삼아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政治思想은 우리에게 멀고 긴 뿌
리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예를들면 李朝朝
의 經國大典이라든가, 더 거슬러 올라가 老
子와 莊子의 自然哲學, 易經의 天一合一思
想은 自然과 人間은 別個가 아니라 調和된
하나로 보는 自然調和思想들이 곧 그 뿌리
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던것이 近世에 들어
오면서 西歐의 科學技術과 物質文明 그리
고 市場經濟가 導入됨에 따라 어느덧 傳統
的인 政治文化는 사라져갔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市場앞에 山林은 實로 無力한 存在요,
나무는 市場이 있다해도, 環境은 商品이
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러한 特性을 가리켜, 일찍이 칼막스도 그
有名한 資本論에서 市場의 힘만으로 林業
을 振興시키기는 어렵다는 點을 皮력한바
있고, 오늘날 많은 經濟學者들도 市場失敗
領域으로 林業分野를 指目하고 있습니다.
그 實證的인 例를 英國을 비롯한 西歐여러
나라의 產業革命과 資本主義發達史를 보면
더욱 確然해집니다. 눈앞의 돈벌이만 친다
면 林業보다 農業이 낫고, 農業보다 工業

이 낫겠지요. 그러므로 林業을 포기하고 山林을 파괴하면 農業과 工業을 同時에 일으켜서 一石二鳥의 돈벌이가 됐던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풀을심고 면양을 길러 옷감을 짤 수 있고, 벤 나무로는 솥을 구어 솥물을 녹임으로써 鐵鋼工業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自然은 破壞되더라도 經濟를 일으켜 돈만 벌면 이로써 世界를 支配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西歐여러나라는 17世紀부터 남에게 뒤질세라 自然파괴에 競爭의으로 熱을 올린結果, 드디어 산림은 國土의 10%~20% 内外까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人口는 늘고, 石炭 石油 등 化石燃料의 登場, 各種 工業公害 등으로 地球의 環境問題는 오늘날 深刻한 狀況에 이르렀고 종전에 장미빛 꿈을 꾸던, 自然을 破壞하고 開發하면 經濟成長이 무한할 것으로 생각했던 이러한 꿈은, 成長의 限界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英國이 낳은 歷史학자 토인비教授는 이러한 人類의 將來를 우려한 나머지 公害의 原因은 自然破壞에 있고 自然破壞는 바로 우리 人間의 잘못된 自然支配思想에 있다. 이 自然支配思想, 사람이 自然을 支配한다고 하는 思想, 이 思想의 그 뿌리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西歐 宗教思想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警告한바가 있습니다.

美國이 낳은 文化人類學者 프로렌스 크라크혼 博士는, 歷史의으로 人類의 自然觀을 세가지로 구분한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멕시코의 自然崇拜思想, 멕시코는 自然을 하늘처럼 받들고 人間을 낮추는 自然崇拜思想을 믿었습니다.

두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西歐여러나라의

自然支配思想, 이것은 自然을 발밑에 깔고 사람이 自然을 支配하는 것이 經濟開發을 하는 일이다. 이러한 自然支配思想입니다.

세번째가 東洋에서 뿌리를 박은 自然調和思想입니다. 自然과 사람은 판목이 아니요 한몸이기 때문에 自然과 人間이 調和를 이루지 아니하고는 公害로부터 人類의 文明을 부지할 수가 없고 그러한 哲學思想의 뿌리는 우리는 東洋以外的 땅에서 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主張한바가 있습니다.

環境問題가 이렇게 成長을 制限하는 要素로서 登場함에 따라서 先進여러나라들은 이제 山林 까먹는 것을 멈추고 거꾸로 까먹었던 山林을 다시 늘리는데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樣相입니다.

最近 FAO 統計를 보면 林業의 立場에서 이 先進國을 區別하는 것이 아주 簡單합니다. 先進國은 例外없이 繼續해서 山林面積이 늘어나고 있는 樣相이고 後進國은 例外없이 山林을 자꾸 까먹기 때문에 山林面積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樣相입니다. 山林面積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 先進國이나 後進國이나를 區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歷史는 反復한다는 말과같이, 治山治水가 政治의 要諦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바야흐로 韓國政治가 아니라 世界政治가 要諦가 되어가고 있는 樣相을 띄고 있습니다. 地球環境問題 解決의 脫出口은 地球綠化運動이 으뜸이라는 생각을, 온 先進國들이 뒤늦게야 自覺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몇몇 先進國들이 綠化運動을 하는 것만으로는 力不足입니다. 이른바 熱帶林의 破壞問題, 熱帶에 있는 山林많은 여러나라들이 여기에 同參하지 아니하고는 地球綠化運動의 可能性이 없다. 이렇게 생각

한 끝에, UN은 1972年 6월에 스톡홀름에서 첫번째 UN人間環境會議을 열면서 山林의 環境的 價値를 다시한번 온人類앞에 呼訴한바가 있습니다. 그 以後로 1973年 유엔環境計劃, 1979年 제네바協約을 거쳐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G7會議가 있을때마다 林政問題가 議題로 登場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은 몇년전에 우리나라 신문에까지 그 內容이 紹介된바와 같습니다. 알고보니 이와 같이 林政問題가 世界政治 問題化 되어가는 그 이면에는 불란서의 특히 미테랑 대통령이 많은 努力을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第10次 世界林業會議를 파리에서 열었습니다. 이 會議도 역시 미테랑 대통령이 G7會議에서만 強調 할것이 아니라 全世界 林業人들이 모인자리에서 林業人들이 責任을 力說할 수 밖에 없다해서 파리로 誘致해서 文字 그대로 3,000여명의 全世界 林業人들이 모인가운데서 이른바 파리宣言을 採擇하게 됐습니다. 이 파리宣言의 內容은 곧 이어질 來年 6월달에 보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또 거창한 會議가 있는데 이 會議에 여러가지 林政問題의 建議를 하도록 하는 內容을 파리宣言이 담고 있습니다.

來年 6월달에 있을 UN環境開發會議가 열리게 되기까지 미테랑 대통령이 상당히 影響力을 行使한 것으로 들은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파리會議에 다녀왔습니다만 가기전부터 무슨연고로 이렇게 불란서가 世界林政을 主導하고 있느냐 특히 미테랑 대통령이 왜 이러느냐 하는 것이 궁금스러웠는데 거기 가서 파리會議에서 미테랑대통령이 開會演說에서도 여러번 強調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老政治家가 주 두먹을 불끈쥐면서 世

界林政 問題의 解決없이는 人類의 將來가 없다고 強調하면서 G7會議때마다 자기가 強調했던 것을 實吐를 했습니다.

다음날 불란서 農林部의 國際協力局長을 만나가지고 1시간동안 어찌서 불란서가 또 미테랑 대통령이 이렇게 世界 林政問題에 關心이 크며 그 背景은 무엇이나고 물어봤더니 要約컨데 너댓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테랑 대통령이 本來 산속에서 태어나 가지고 特別히 自然을 愛好하는 氣質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두번째는 불란서 國民들의 輿論이 지금 公害問題와 山林問題를 政治的으로 解決해야 할 重大事案이라고 생각하는 輿論을 미테랑 대통령이 政治家의 センス를 가지고 把握을 해서 政治이슈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自由와 平等을 理念으로 한 불란서 革命 그 人道主義的인 휴머니즘이 그 政治論理의 背景에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世界林政史에 불란서가 寄與한 傳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近代 山林法의 嚆矢가 불란서 山林法이며 불란서는 EC 12個國중 가장 山林이 많은 나라요 林產物을 수출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EC 内部에서 山林, 林政問題에 관한한 프라우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歷史的인 寄與가 世界 林政問題에 關心을 가지게 된것이고,

네번째로 政治的 側面에서 본다면 불란서는 國際政治에서 지금까지 그 路線이 꽤 理性的이고 遠視眼的인 點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그외에 여러 強大國들은 우선 當面한 問題, 가령 이데올로기 問題니, 핵問題니, 軍事問題니, 經濟問題니 이런問題에는 굉장히 敏感하게 政治問題化 하면서도, 진정 먼 人類

를 바라보는 人類의 生存自體를 威脅하고 있는 環境問題는 強大國들이 國際政治問題로 疏外視하는데, 이것을 가장 理性있는 불란서가 앞장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너댓가지 理由가 미테랑 대통령이 林政問題를 世界 林政問題로 끌어올리는데 重要한 役割을 한 背景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參考로 6. 1~6. 12까지 브라질 리오자데네이로에서 있을 이른바 UN 環境開發會議 몇가지 特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招請對象이 各國의 元首와 學者, 民間團體 등으로 參加豫想 人員이 約 3만명입니다. 지난달의 파리에서 있었던 것이 約 3,000명이었는데 비해서 그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내년 브라질 리오에 모일 作定입니다.

韓國에의 誘致도 當爲性 充分, 꿈만은 아니다

會議 議題는 地球憲章(Earth charter)을 採擇해서 人類의 運命이 이 地球의 環境問題에 있으니 地球를 잘 가꾸고 山林을 잘 가꾸어서 우리와 우리후세가 좋은 環境속에서 길이 살아남도록 呼訴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地球憲章을 實踐하기 위해서 21가지 議題를 設定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은 이 자리에서 내년 6월달에 確定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몇가지는 協商이 進行중인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議題 가운데 山林議定書 이른바 Forest Protocol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會議가 워낙 重要하고 커다란 會議다 보니까 準備委員會도 다섯차례 할 作定인데 지금까지 세번은 했고 앞으로 두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今年 12월달에는 파리에서 또 한번 準備會議을 하는데 여기에는 NGO라해서 非政府組織, 우리나라 같으면 林政研究會가 될지 山林組合이 될지 혹은 篤林家協會가 될지 이러한 非政府의 民間組織까지도 이 地球를 살리는 會議에 同參시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불란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非政府的인 林業人들을 모아놓고 準備會談을 하겠다 하고 있고, 마지막 準備會議는 來年 2월달에 뉴욕에서 準備會議를 하고나서 來年 6월달에는 本會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會議가 이렇게 거창한 會議이기 때문에 이 會議는 원래이름은 UN環境開發會議라고 합니다마는 줄여서 地球頂上會議, Earth Summit라고도 하고 山林을 主要議題로 다룬다해서 山林頂上會議, Silva Summit라고도 부릅니다.

그 理由는 이 會議에서 30%~50% 차지할 程度의 比率이 山林問題이기 때문입니다. 이 21個 議題中에서 아까 말씀드린 山林議定書, 즉 國際山林法의 內容이 우리의 關心의 對象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準備委員會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合意點에 이른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理由는 이 山林問題와 關聯시켜서 남쪽 熱帶林의 나라인 開發途上國家와 先進國 북쪽나라가 첨예하게 利害가 對立되어 있습니다. 서로 讓步를 안합니다.

이미 熱帶林을 가지고 있는 20여개국은 파리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熱帶國 林業人聯盟을 만들었고 수시로 모여 파리會議에서도 先進國中心의 모든 決議를 보이코트 한다고 한두어차례 籠城을 하고 데모를 한것을 보고 이렇게 남북간이 合意點에 이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展望하건데 來年 6월달에 山林議定書까지 合意點에 이르고 우

리나라 外務部長官이 가서서 도장을 찍을 지 또 그 다음의 會期로 미룰지 이걸 아직도 두고 봐야 할 일로되, 이 山林議定書는 國際政治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山林議定書가 確定이 되면 짐작하건데 議定書 內容이 각 나라의 山林政策에 좀 強制性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強制性을 띄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 나라에서 나무를 얼마나 베는지, 심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이것을 유리알처럼 살피지 않고서는 世界 林政問題, 世界 環境問題가 秩序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山林議定書가 協定이 됨으로써 아마 山林行政機構, 世界 山林廳이라 할지 世界 山林部라 할지 그러한 執行機構가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FAO가 그밑에 山林部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이 機構는 지금까지 統計나 잡고 무슨 建議나 하고 이런 정도인데, 새로생길 機構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行動으로 각 나라를 監視하고 이렇게 國際山林法에 違反할때는 어떤 形態로든지 응징하고 보복하는 執行機構가 생길것 같은데, 저는 그 機構가 생기면 혹시 그 이름이 世界山林機構 World Forest Organization이라고 붙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이 地球上의 林政問題는 이미 우리와 같은 林政專門家의 손을 이미 멀찌감치 벗어나고 있습니다. 또 國內 政治問題의 領域도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世界頂上들이 政治的 決斷만 남겨둔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來年 6월달을 起點으로 해서 世界의 林政史는 大轉換이 될 展望이며, 比較하건데 지금 제네바에 있는 소위 GATT의 우루과

이라운드는 지금 農產物開放등 커다란 貿易 問題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山林議定書가 정해지면 각 나라의 山林政策이 커다란 制約과 監視를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林政問題의 世界的인 흐름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어찌하여 그러면 이렇게 林政問題가 國際政治 問題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來歷을 整理해 보겠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山林은 크게 세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機能은 生産經濟機能이요, 둘째는 生態環境機能이며, 세번째는 社會文化機能입니다.

이 生産經濟機能을 보더라도 木材의 將來 需給展望등 매우 크게 憂慮된바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고 經濟는 불어나고 世界 木材資源은 점점 줄어들어서 큰 問題가 될 展望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두번째 生態環境機能 이것은 人類全體의 生存에 關聯된 問題이기 때문에, 山林의 生産經濟機能에 앞서서 生態環境機能이 強調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中에서도 炭酸가스가 增加되기 때문에 地球가 溫暖化 되고 生物學的 多樣性을 保存하는 問題 이 두가지 問題가 林政問題와 關聯시켜서 國際 政治問題化 하고 있는 核心的인 部分입니다.

먼저 炭酸가스로 인해서 地球의 溫暖化가 어떻게 이루어 있느냐 이것을 대체로 한번 要約해 본다면은, 원래 地球가 만들어질때의 原始大氣는 주로 炭酸가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바다와 육지에서 여러가지 植物들이 炭素同化作用을 함으로써 이 炭酸가스가 계속 줄어들고 酸素는 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約 5억年前까지

는 炭酸가스가 約 0.02% 그러니까 200ppm 까지 줄어들고 그 반면에 별로 없던 酸素가 空氣中の 酸素가 21% 가까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酸素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나 모든 動物들이 숨을 쉬면서 地球上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安定된 大氣 狀態가 무려 5억年 동안을 持續해 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말이고 하니 처음에 原始大氣였던 炭酸가스중에서 수풀의 炭素同化作用으로 말미암아서 炭素가 분리되어 가지고 나무, 석유, 석탄 등의 形態로 固定시켜 놓으니까 酸素만이 大氣中에 늘어나게 된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해서 5억年 동안을 이렇게 安定되어 있던 大氣가 불과 몇백년전부터 産業革命이 일어나면서 炭酸가스가 늘면서 原始大氣로 還元되어 가는 徵候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무를 전부 베어가지고 炭素를 固定시키는 그 機能이 地球全體로 볼때 顯著하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이미 수억만년 동안에 大氣中の 炭素를 땅속에 固定시켜 왔던 석유라든가 석탄, 이러한 炭素를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全部다 불태우면서 地球의 炭酸가스가 元來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學者들이 研究한 바에 의하면 元來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02%밖에 안되던 炭酸가스가 1960年度에는 0.029% 늘어났고, 1975년에는 0.033%로 늘어났고, 1990年 現在는 0.035%로 늘어나서 過去 30년 동안에 벌써 空氣中の 炭酸가스가 20%가 늘어났으니, 이런 趨勢로 늘어나면 2000年代에는 0.037%가 되고 2030年度에는 0.054%가 되어 1960年보다도 1.8배, 즉 80%의 炭酸가스가 增加해서 地球가 温暖化의 原因이 된다는 것입니다.

2030년에 地球가 温暖化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氣溫이 1.5° C~4.5° C가 올라가고 그로인해서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海水面이 20cm~140cm 上昇하고 그렇게 되면은 海岸都市라든가 農土는 全部 水沒이 되고 沙漠이 북쪽으로 올라와서 溫帶林도 全滅될 것이라고 憂慮하고 있습니다.

이 炭酸가스가 增加한 原因중에서도 約 40%를 차지한 原因이 바로 남쪽나라 熱帶林을 破壞하는데 있습니다.

熱帶林이 얼마만큼 破壞되느냐 하면 1980年代의 統計를 보면은 1년 동안에 平均 1,100만ha 정도의 熱帶林이 破壞되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90년에는 1,700만ha로 벌써 60만ha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熱帶林을 破壞하는 問題는 그 熱帶林을 破壞하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炭素를 固定시키는 作用을 못하게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1,700만ha의 熱帶林中에서 約 半 程度는 火田하기 위해서 불을 태우는데 이때 發生하는 煙氣와 炭酸가스가 空氣中에 퍼져서 問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先進國에서는 熱帶林 가진 나라 보고 당신나라 왜 이렇게 나무를 불태우시오. 좀 自制를 하시오. 炭酸가스가 이렇게 늘어나면 온 人類가 지금 죽을판이 아니오. 이렇게 警告를 하지만 後進國들은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後進國 熱帶林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對抗論理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 북쪽나라에 사는 잘사는 사람들이 山林을 먼저 破壞한 자가 누구였느냐 産業革命을 일으킬 때에 몇백년전부터 너희들이 먼저 破壞 하지 않았느냐. 全國土에서 차지하고 있는 山林面積의 比率을 보라. 북쪽先進國들은 할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또한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火田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알고 있느냐? 饑餓線上에서 헤매이면서 호구지책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을 불태워 火田하는데 先進國 당신들은 왕년에 다 산까가지고 그걸로 돈벌어 잘먹고 잘살면서 무슨 배부를 소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진정 그렇게 거창하게 人類問題를 생각해서 熱帶林을 지키려한다면 酸素값을 내놔라 이런 애깁니다. 그러면 그 돈 받고 우리는 熱帶林 破壞를 中止함으로써, 너희들 呼應에 응하겠단. 결국은 돈 問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 統計 숫자가 80年代까지만 하더라도 1,100만 程度 熱帶林 破壞가 갑자기 90年代 들면서 1,700만 程度로 갑자기 늘어난 이 統計現狀을 어떻게 보면은 先進國에 대한 後進國의 反撥이 곁들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參考로 제가 試算한 바에 따라 우리나라 炭素需給 事情을 일별해 보면, 650萬ha의 山林에서 1年間 生産되는 바이오메스(Biomass)가 約 2,500만톤으로 推算이 되며, 이를 生産하는 過程에서 空氣中 炭酸가스는 約 4,000만톤을 吸收하고 約 2,900만톤의 酸素를 大氣로 放出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呼吸을 하는데 1년동안에 酸素를 約 1톤을 消費한다고 하니까 1년간 酸素消費量이 4,200만톤이 됩니다. 수풀에서 酸素가 나오는 것은 2,900만톤인데 消費는 4,200만톤이므로 1,300만톤의 酸素가 모자란다는 셈입니다.

그런데 呼吸하는 것이 사람뿐아니고 짐승들도 있고 자동차나 工場에서 消費하는 酸素도 많을테지요. 다행히 大氣에는 國境이 없어가지고 슬슬 空實가 흘러 다니기 때

문에 우리가 外國에서 酸素를 사쓰지는 않습니다만 엄격히 따지고 보면 酸素도 赤字 國인 셈입니다.

다른 한편 生物學的 多樣性을 保存하는 問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地球上에서는 約 140여만種의 生物이 있습니다만 이 熱帶林에서 가지고 있는 生物의 種이 約 4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이 環境을 破壞했기 때문에 20世紀末까지 約 15%가 滅種이 될 것이라 하고 그 以後에도 最惡의 境遇에는 이 種들이 65%가 滅種이 될 展望이라 해서 이것 또한 關聯 돼가지고 深刻한 問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山林破壞로 인한 環境問題는 다른 여러가지 工業이나 자동차 排氣가스 등 生活環境 問題와 더불어서 人類의 滅種까지를 憂慮케 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한때 新生代때 공룡이 나타나서 이 地球를 支配하다가 지금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지요.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공룡이 빠로 된 標本을 보았는데 그 길이가 20여m는 됐던것 같습니다. 그놈이 살아 있었다면 무게로 따져서 수십톤이나 수백톤이 됐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이 소리없이 地球上에서 지금은 滅種이 되어서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공룡의 運命을, 第2의 공룡의 길을 우리人類가 걷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憂慮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이 있다면 공룡은 덩치가 커가지고 몸으로 地球를 支配했는데 반해서 人間은 덩치는 작지만 머리를 가지고 現在 地球를 支配하고 있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또하나 다른것이 있다면은 공룡은 몸이 컸지만 머리가 작았기 때문에 덩치가 자기

자신의 滅種을 가져오는 桎梏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人類는 머리가 있기때문에, 이 머리가 發達해 가지고 모든 産業을 일으키고 環境을 破壞하면서도 그 머리로 말미암아서 人類의 全滅의 길을 갈지도 모른다 하는 것을 豫見할 수 있고 公衆과 달리 미리 滅種되지 아니한 方道를 생각하는 能力이 人類에게는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두가지점이 公衆과 다를뿐 다른 점에서는 큰 差異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來年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山林議定書를 만들어 가지고 環境保全과 經濟開發의 調和를 이루고 林地의 轉用을 엄격히 禁止하며 林地는 最大한 炭素의 貯藏庫로서 炭素를 꼭 붙잡아 두게 하는 것이 地球의 溫暖化 炭酸가스를 막는 길이 되므로 全 人類가 나서서 地球綠化運動을 展開해야 된다는 內容이 거기에 실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以上 말씀드린 바와 같이 林政問題가 國際問題가 發展된 理由를 要約하면, 땅에는 國境이 있지만 大氣에는 國境이 없이 흘러 다니기 때문에 國家單位로 아무리 이걸 統制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므로 國際的인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니되고 生物學의 多樣性 또한 特定國家만의 資産이 아니고 世界人類가 길이 保全하고 應用해야 될 資産이므로 國際的인 힘이 아니고서는 이걸 保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家間, 地域間, 先後進國間에 理解가 상반 되어서 自發的인 解決을 期待하기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國際的인 監視와 介入이 不可缺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産業分野는 이 環境改善의 效果가 短片的이고 消極的인 效果뿐인데 반해서,

林業分野, 山林分野만은 環境改善 效果가 綜合的이고 長期的이며 또 合自然的인 環境改善 效果가 있으며 全 陸地의 1/3 이상을 占有하고 있는 방대한 環境施設이 또한 山林이기 때문에 各나라는 UN憲章과 國際法의 秩序에 따라서, 스스로 環境政策을 追求하고 天然資源을 採取할 權利가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國家管割權의 限界를 넘어서, 他國의 環境에 損傷을 주지않을 責任이 또한 各나라 主權에 있다 이런 애갑니다.

따라서 各 나라는 山林을 持續可能 하도록 經營해야 되며, 영어로는 Sustainable management라 합니다마는 從前보다 새롭고 多樣하고 複雜한 概念입니다.

아무튼 各國은 山林을 持續可能하도록 經營을 해야 되며 國際山林機構가 생길 경우에 그 山林機構의 監視를 받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治山治水는 國境을 넘어서 國際政治의 要諦가 되고 있는 狀況이며, 구태여 한가지 더 보탠다면 空氣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治空을 하나더 보태서 治山治空이 될 樣相이어서 우리 傳統的인 우리나라의 政治思想이 어찌면 오늘날 國際政治思想으로 再現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듯한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같은 世界의 林政의 흐름에 對處해서 어떤 對應方案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는것을 要約하고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생각 하건대는, 對內的으로 한 두어가지 對應方案이 있을 수가 있고, 對外的으로 서너가지 對應方案, 합해서 일곱가지 程度 對應方案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對內的인 對應方案으로서 國際的인

분위기 林政問題가 政治 提議題가 되는 이런 분위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林業, 山林分野는 우리나라나 다른나라에서도 그리 인기있는分野는 못된것 같습니다.

그런 林業問題가 이렇게 國際政治問題가 될 때가 언제 있었느냐. 이 機會를 놓치지 말자, 國際흐름을 利用해서 國內 林業發展의 決定的인 機會로 삼자는 것이 國際분위 기였습니다. 豫算과 機構는 물론이요 人力이라든가 모든 國家支援을 이 機會를 놓치지 말고 100% 活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 林政이, 아까 불란서 미테랑 대통령처럼 世界林政의 主導國은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世界林政의 指導國 隊列에 한번 끼일수 있는 스스로의 力量을 우리 韓國 林業人들이 길러야 되겠다는 點입니다. 예를들어 學校에서는 國內用 林業人만을 기를것이 아니라 世界 林業人을 길러야 합니다.

아까 山林의 몇가지 機能에서 말씀드렸지만 技術的·經濟的인 生産經濟機能만 우리가 能事로 삼을 것이 아니고 環境機能이라든지 生態機能이라든지 혹은 社會機能이라든지 文化機能, 이런 多樣한 機能이 山林에 있기 때문에 우리 林業人들은 林業機術은 물론이고 經濟學, 生態學, 社會學 등 多樣한 學問分野로 武裝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외에 國際會議에서 판을 칠려면은 外國語를 強化해야 하겠습니까.

外國에 가서 영어만 조금 하면은 되려니 했는데 불란서에 가서 망신을 당했어요. 불란서 가니까 印刷物이 불란서어로 되어있는것이 많아서 油印物 나눠주는 아가씨한테 화를 냈어요. 당신들 國際會議를 한다면 영어를 안하고 왜 불란서어로 해가지

고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역공을 당했습니다. 그 아가씨 말이 아니 불어도 國際어인데 불어를 안해가지고 어떻게 國際會議에 왔느냐고 했습니다.

할말이 어디있습니까. 우리는 外國語하면 지금까지 영어, 독일어 아니면 일본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영어, 불어, 서반아어, 포르투갈어, 일어, 독어, 중국어, 소련어, 한국어까지 합치면 9개나라 말을 해야 國際林業人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는 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 여튼간에 입이 제대로 트이고 귀가 제대로 트이지 않으면 世界舞臺에서 韓國 林業人의 力量을 도저히 發揮할 수 없다는 點을 強調하고 싶습니다.

또 研究機關이나 行政機關, 業界도 나름대로 이러한 世界의 林政분위기에 상응하는 對應方案을 講究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다음 對外的인 對應方案을 너댓가지로 要約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엇그저께 UN에 加入했습니다만 新參 UN會員國으로서 또 우리는 땅덩어리 2/3가 山林이니가 손꼽히는 世界 山林國으로서 世界 林政問題에 대해서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직 남북이 合意가 안된 段階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른바 山林議定書(Forest Protocol)는 世界 山林法이므로 內容을 살피고 傍觀할게 아니라 적어도 그 內容이 우리 韓國의 立場에서 有利한 內容이거나 적어도 不利한 內容은 안들어가게끔 미리 努力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세번째 對應方案으로는 이 山林議定書가 合意가 된 후로는 世界 山林機構 假稱 World Forest Organizaton(略稱 WFO)

의 설치를 놓고 세계나라들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니 의견이 불분합니다.

불란서 같은 나라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積極나서는 나라이므로 우리도 이에 同參하여 이 機構를 設立키로 한 다음에 이 機構를 우리 한국에 誘致하는 方案을 한번 檢討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여기에 候補나라가 여러나라가 생각되어요. 불란서를 위시해서 일본도 생각이 있을 거고,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미국 등 여러나라들이 候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결코 이러한 나라들에 못지않은 有利한 點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韓國的인 것이 가장 世界的이라는 말과같이, 이제 우리의 治山治水의 政治理念과 自然調和思想 등 우리 傳統的인 것을 世界것으로 普遍化시킬 그런 機會가 지금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世界 林政機構를 우리나라로 誘致한다고 할 境遇에 假想的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음 論理를 내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韓國은 2次大戰後 唯一한 國土綠化 成功國이므로 그 技術, 經驗, 意志力으로 世界綠化事業에 擴散, 寄與하겠다.

둘째, 韓國은 先進國도 아닌 中進國이므로 熱帶林 問題等 남북간의 理解를 中立的인 立場에서 政治的 調整役을 擔當하기에 最適合이다. (불란서等 先進國에 誘致될 경우 後進國의 反撥豫想)

셋째, 自然環境問題의 根本은 傳統的인 西歐의 自然支配思想에 基礎한것이므로 이를 東洋傳來의 自然調和思想으로 轉換시켜야 世界綠化事業을 成功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象徵하는 뜻으로 韓國이 適合하다. (일본은 先進國일뿐 아니라 6年前 熱帶木材機構(ITTO) 誘致시 韓國이 Casting Vote를 던졌으므로 이번에는 韓國에 對抗할 수 없고 道義的 빚을 지고 있음)

넷째, 韓半島는 2次大戰後 理想的, 軍事的으로 東西 冷戰 對決構造의 象徵이 되어 왔으며, 마야호로 世界的 解氷 무드를 맞이하여 世界綠地事業機構로 韓半島(관문점)에 建立한다면 이른바 『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는 人類의 平和意志를 가장 克明하게 나타내는 것이 될것이다.

다섯째, 韓半島는 UN과 깊은 因緣이 있으면서도 敗戰國 일본에는 UN機構(ITTO)가 있으나 韓半島에는 UN機構가 없음.

이번에 南北아 UN에 共同 加入하였고 앞으로 다른 UN 會員國들과 平和와 共同利益事業에 積極 參與할 意志가 있으므로 南北韓 UN加入을 紀念하고 祝賀하는 全人類의 膳物로서 關門점에 UN機構를 세워준다면, 이를 契機로 冷戰의 마지막 障壁인 休戰線을 허물고 統一의 길을 短縮시키는데 決定的인 機會가 될것으로 確信한다.

여섯째, 世界山林機構가 韓半島에 서게 되면, 大韓民國 政府는 關門점 地域에 世界 어느 UN建物 못지않은 建物과 職員用 田園 住宅村을 지어 UN에 獻納함으로써 그 동안 UN과 全人類의 支援에 報答코져 한다.

이렇게 한 대여섯가지 論理를 세운다면은 어떻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假想的인 것입니다만은 우리 努力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假想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6年前에 바덴바덴에서 '88올림픽 誘致할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사람들이 엉뚱한 꿈같은 소리 말아라 하고 挽留

했음에도不拘하고 우리는 저돌적으로 '88 올림픽을 誘致해서 멋지게 치렀습니다.

'88올림픽은 한번 지나면 그만인 一回性 行事に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UN機構는 한번 誘致하면 持續的인 機構일뿐 아니라 韓半島가 人類를 살리는 地球綠化事業에 中心地가 된다는 平和的 이미지가 世

界萬邦에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世界 UN會員國 170餘個國中에서 國際林政機構를 誘致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구실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確信하면서 會員여러분들의 深思熟考를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본지광고 안내

본지에 광고를 희망하시는분, 특히 회원사는 본지의 발전과 광고 효과를 함께 하도록 협조를 당부합니다.

Tel. 961-2721
963-4306

山林經營用語

- 法正林(Normal-forst) : 材積收穫의 嚴正保續을 실현할수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갖춘 山林
例, 伐期令이 60年일때 매년 일정량을 벌채하여 일정량의 伐採收穫量을 얻으면서 그 伐採跡地에 매년 일정량의 造林을 해나가면 伐期令은 60年이고 수확량은 嚴正保續生産이 되며 그 林相은 法正林상태가 된다.
이를 위하여는 法正令級配置(各年齡의 林分の 面積이 같은 것), 法正林分配置, 法正蓄積, 法正生長量의 4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山林經營의 目標을 이러한 法正林에 들때 이를 法正林 思想이라 한다.